

임종태도와 HOSPICE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김영욱 · 이중훈 · 이종범 · 박병탁 · 정성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치료방사선과교실

김명세

영남공업전문대학 간호학과

김후자

서 론

최근 수십년간 의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의료인력과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점차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과거에 치료받지 못했던 말기환자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경제수준의 향상과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정에서보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고 의료인들이 임종환자를 대하는 기회 또한 점점 많아졌다. 이런 환자들을 대할 때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들에게 알려 줄 것인지 혹은 아닌지의 여부나 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겪는 고충은 무엇이며, 또 이들이 바라는 바의 도움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미각국에서는 약 30여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 분석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약 10여년 전부터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있어 왔다.¹⁾

임종의 연구방법은 죽음의 불안과 임종의 과정에 대해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다수를 대상으로 임종환자에 대한 태도조사를 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²⁾

Freud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상반된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들어 죽음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을 처음 시도했으며³⁾, 1949년 Stekel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임종심리학의 권위자인 Kübler-Ross는 2년간 500여명의 임종환자들과 직접 면담한 뒤 펴낸 그의 저서에서 임종의 심리과정을 부정(Denial), 분노(Anger), 타협(Bargain), 우울(Depression), 수용(Acceptance) 등 5단계로 나누었다.⁴⁻⁵⁾

질병의 통고문제에 있어서는 Oken⁶⁾은 반대의 입장에서 Noyes 등⁷⁾은 찬성의 입장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 외에도 Aldrich⁸⁾는 환자가 겪는 애도의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고, Barton⁹⁾은 의학교육에 있어서의 임종심리학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었다.

국내에서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죽음의 태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¹⁰⁻¹²⁾ 죽음의 태도문제에서 임종의 통고여부에 관하여 연구를 한 바 있었다.¹³⁻¹⁷⁾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종에 관한 연구들은 그 내용이 임종통고 여부와 이유, 고통등에 한정되어 있고 그 대상 또한 의료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임종환자, 임종환자의 보호자 및 죽음을 수용할 인생주기의 마지막단계에 놓인 노인인구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분석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에 이들 임종환자에게 죽음이 갖는 의미와 요구사항, 환자가족과 의료인의 태도, 임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과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임종환자에 대한 보다 임상적인 적용을 위해 조사대상을 의료인, 암 환자, 보호자, 그리고 노인의 4군으로 나누고, 조사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임종환자의 감정과 욕구

둘째, 통고문제

셋째, 의료인의 임종환자에 대한 태도 및 욕구

넷째, 죽음에 대한 일반적 태도

다섯째, 불치병 환자의 생명연장문제

여섯째, 임종환자 가족문제

일곱째, 보호시설, 전담기구

여덟째, 노인문제

이상의 8개의 소 그룹으로 나누어 총 40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설문의 결과를 통해 저자들은 각 군에 있어서의 태도차이를 규명하여 Hospice의 임상 적용의 타당성과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각군의 태도를 상호 비교 연구하였다.

조사 대상 및 방법

저자들은 198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암환자, 암환자 보호자, 65세이상의 노인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암환자 및 그 보호자들은 영남

대학병원 암센타에서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암환자들과 그 보호자들로 치료 방사선과 전공의들의 협조로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경북 성주군의 2개읍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과대학생들이 직접 질문하여 작성하였으며 의료인들은 영남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수련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Cincinnati 의과대학의 Carolin Wig-net에 의해 개발된 자원봉사자 훈련계획에서 얻어진 문항에서 주로 발췌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강한 찬성에서 강한 부정까지 5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의 통계적 검사는 Chi-square test와 T-test를 시행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1).

전체 대상자는 242명이었고, 집단별로는 암환자 51명, 암 환자 보호자 44명, 노인 72명, 의료인 75명 등이었다.

연령 분포에서는 암 환자의 경우 50대가 51%로 가장 많았고, 암 환자의 보호자는 20대에서 30대 사이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수련의와 전공의,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인의 경우 20대가 96%였다.

성별로는 암 환자의 경우 남자가, 암 환자 보호자, 노인 및 의료인의 경우는 여자가 많았다.

종교별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132명, 없는 사람이 110명이었으며, 종교중에는 불교가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암 환자의 경우 중졸 이하가 60.8%, 보호자의 경우 고졸 이상이 52.3%, 노인의

경우 국졸 이하가 98.6%, 의료인은 전부 대졸 이상이었다.

1. 통보문제

임종통고 찬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았다(표 2). 응답자의 62.1%가 임종 통고에 찬성했으며

반대가 28.5%로 나타났었다. 노인군과 환자가 족군에서는 반대가 각각 40.2%, 40.9%로 환자군과 의료인군에 비해 높았고, 의료인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p<0.01$).

Table 1. Various psychosocial factors of 4 experimental groups Total N.=242, () = %

	Ca. patient N=51	Ca. patient's family member N=44	Elderly N=72	medical personnel N=75
Age				
20's	2(3.9)	15(24.1)	0(0.0)	72(96.0)
30's	5(9.8)	11(25.0)	0(0.0)	3(4.0)
40's	9(17.6)	8(18.2)	0(0.0)	0(0.0)
50's	26(51.0)	8(18.2)	0(0.0)	0(0.0)
60's	5(9.8)	2(4.5)	41(56.9)	0(0.0)
70's	4(7.8)	0(0.0)	28(38.9)	0(0.0)
80's	0(0.0)	0(0.0)	3(4.2)	0(0.0)
Sex				
Male	31(60.8)	16(36.4)	21(29.2)	31(41.3)
Female	20(39.2)	28(63.6)	51(70.8)	44(58.7)
Religion				
Protestant	6(11.8)	4(9.1)	12(16.7)	16(21.3)
Buddhism	15(29.4)	16(36.4)	21(29.2)	7(9.3)
Catholic	5(9.8)	4(9.1)	11(15.3)	12(16.0)
Others	2(3.9)	1(2.3)	0(0.0)	0(0.0)
No	23(45.1)	19(43.2)	28(38.9)	40(53.3)
Occupation				
Agriculture	10(19.6)	5(11.4)	31(43.1)	0(0.0)
Industry	6(11.8)	3(6.8)	0(0.0)	0(0.0)
Commerce	7(13.7)	7(15.9)	0(0.0)	1(1.3)
Others	28(54.9)	29(65.9)	41(56.9)	0(0.0)
Education				
Illiteracy	8(15.7)	4(9.1)	65(90.3)	0(0.0)
Primary school	18(25.3)	5(11.4)	6(8.3)	0(0.0)
Middle school	13(25.5)	12(27.3)	1(1.4)	0(0.0)
High school	9(17.6)	14(31.8)	0(0.0)	0(0.0)
College	3(5.9)	9(20.5)	0(0.0)	75(100.0)

Table 2. Number and percentage of responses to the statement that dying patient should be told they are dying

	Ca. patient N=51	Ca. patient's family member N=44	Elderly N=72	medical personnel N=75	Total N=242
Strongly agree	5(9.8)	4(9.1)	5(6.9)	22(29.3)	36(14.9)
Agree	30(58.8)	21(47.7)	32(44.4)	29(38.7)	112(46.3)
Uncertain	4(7.8)	1(2.3)	6(8.3)	14(18.7)	25(10.3)
Disagree	7(13.7)	13(29.5)	24(33.3)	7(9.3)	51(21.1)
Strongly disagree	5(9.8)	5(11.4)	5(6.9)	3(4.0)	18(7.7)

Total : $X=41.95$, $p<0.001$

Ca. pt's family member - medical personnel, $p<0.01$

Elderly - medical personnel, $p<0.001$

2. 임종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의료인의 임종환자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표 3). 의료인이 임종환자를 회피하는 경향에 대하여 총 응답자 242명중 찬성이 100명(41.3%), 반대가 69명(28.5%)로 의료인군의 반대가 타군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었다($p<$

0.01).

의료인의 임종환자 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표 4). 의료인이 임종환자를 먼저 포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242명중 찬성이 112명(46.3%), 반대가 76명(31.4%)인데 비해 의료인군은 찬성 36%, 반대 40%로 나타났었다.

Table 3. Number and percentage of responses to the statement that the medical personnel prefer to avoid contact with dying patient

	Ca. patient N=51	Ca. patient's family member N=44	Elderly N=72	medical personnel N=75	Total N=242
Strongly agree	6(11.8)	1(2.3)	0(0.0)	10(13.3)	17(7.0)
Agree	20(39.2)	13(29.5)	32(44.4)	18(24.0)	83(34.3)
Uncertain	13(25.5)	10(22.7)	36(50.0)	14(18.7)	73(30.2)
Disagree	11(21.6)	18(40.9)	4(5.6)	25(33.3)	58(24.0)
Strongly disagree	1(2.0)	2(4.5)	0(0.0)	8(10.7)	11(4.5)

Total : $X=41.95$, $p<0.001$

Ca. pt - medical personnel, $p<0.01$

Ca. pt's family member - medical personnel, $p<0.05$, $p<0.001$

Table 4. Number and percentage of responses to the statement that the medical personnel give up earlier than patient

	Ca. patient N=51	Ca. patient's family member N=44	Elderly N=72	medical personnel N=75	Total N=242	()=%
Strongly agree	4(7.8)	6(13.6)	0(0.0)	6(8.0)	16(6.6)	
Agree	21(41.2)	20(45.5)	34(48.6)	21(28.0)	96(39.7)	
Uncertain	10(19.6)	9(20.5)	15(21.4)	18(24.0)	52(21.5)	
Disagree	13(25.5)	8(18.2)	21(30.0)	22(29.3)	64(26.4)	
Strongly disagree	3(5.9)	1(2.3)	0(0.0)	8(10.7)	12(5.0)	

Total : $X=23.6$, $p<0.001$ Ca. pt - medical personnel, $p<0.001$ Elderly - medical personnel, $p<0.05$ Ca. pt - Ca. pt's family member, $p<0.05$

Table 5. Number and percentage of responses to the mechanical assistance for the hopeless patient

	Ca. patient N=51	Ca. patient's family member N=44	Elderly N=72	medical personnel N=75	Total N=242	()=%
Strongly agree	8(15.7)	4(9.1)	1(1.4)	5(6.7)	18(7.8)	
Agree	20(39.2)	20(45.5)	14(19.7)	11(14.7)	65(26.9)	
Uncertain	6(11.8)	10(22.7)	17(23.9)	17(22.7)	50(20.7)	
Disagree	15(29.4)	9(20.5)	37(52.1)	26(34.7)	87(37.0)	
Strongly disagree	2(3.9)	1(2.3)	2(2.8)	16(21.3)	21(8.7)	

Total : $X=53.6$, $p<0.001$ Ca. pt - medical personnel, $p<0.001$

3. 불치병 환자의 생명 연장에 대한 태도

불치병 환자의 생명 연장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았다(표 5). 총 응답자 242명 중 108(45.7%)이 불치병 환자의 생명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응하였고, 환자군과 보호자군은 각각 51명 중 17명(33.3%), 44명 중 10명(22.5%)인데 비해 노인군과 의료인군의 반대율은 72명 중 39명(54.9%

%), 75명 중 44명(56.0%)로 노인군과 의료인군이 환자군과 보호자군에 비해 유의($p<0.001$)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표 5).

4. 시설 및 교육문제

임종환자를 위한 특수시설 및 교육문제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6).

Talbe 6. Number and percentage of responese to the special facility such as Hospice unit for the dying patient

	Ca. patient N=51	Ca. patient's family member N=44	Elderly N=72	medical personnel N=75	Total N=242
Strongly agree	9(17.6)	7(15.9)	1(1.4)	34(45.3)	51(21.1)
Agree	20(39.2)	20(45.5)	45(62.5)	27(36.0)	112(46.3)
Uncertain	13(25.5)	8(18.2)	13(18.1)	7(9.3)	41(16.9)
Disagree	7(13.7)	8(18.2)	13(18.1)	4(5.3)	32(13.2)
Strongly disagree	2(3.9)	1(2.3)	0(0.0)	3(4.0)	6(2.5)

Total : X=54.8, p<0.001

Ca. pt - medical personnel, p<0.01

Table 7. Nmuber and percentage of responses to the statement that training medical personnel attitude toward dying is inappropriate

	Ca. patient N=51	Ca. patient's family member N=44	Elderly N=72	medical personnel N=75	Total N=242
Strongly agree	4(7.8)	4(9.1)	0(0.0)	1(1.3)	8(3.7)
Agree	16(31.4)	11(25.0)	9(12.7)	8(10.7)	44(18.2)
Uncertain	19(37.3)	10(22.7)	32(45.1)	13(17.3)	74(30.6)
Disagree	11(21.6)	18(40.9)	29(40.8)	34(45.3)	92(38.0)
Strongly disagree	1(2.0)	1(2.3)	1(1.4)	19(25.3)	22(9.1)

Total : X=66.0, p<0.001

총 응답자 242명 중 167%(67.4%)이 찬성하였으며, 의료인 군에서는 75명 중 찬성이 61명(81.3%)으로 가장 높았고 환자군에서 51명 중 29명(56.8%)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7.3%가 찬성한 데 비해, 의료인 군에선 70.6%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Hospice에 대한 인식부족의 결과와 일치된다고 하겠다(표 7).

5. 가족의 태도

가족들이 임종환자를 귀찮게 여긴다는 견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았다(표 9). 응답자 242명 중 126명(52.0%)이 찬성한 데 비해 가족군에서는 34%가 찬성하였고, 환자 및 노인의 찬성을은 각각 48%, 84%이었다.

Table 9. Number and percentage of responses to the statement that family members feel weary of dying patient

					() = %
	Ca. patient N=51	Ca. patient's family member N=44	Elderly N=72	medical personnel N=75	Total N=242
Strongly agree	2(4.0)	2(4.5)	0(0.0)	5(6.7)	9(3.7)
Agree	22(44.0)	13(29.5)	61(84.7)	21(28.0)	117(48.3)
Uncertain	10(20.0)	5(11.4)	3(4.2)	32(42.7)	50(20.7)
Disagree	12(24.0)	18(40.9)	8(11.1)	13(17.3)	51(21.1)
Strongly disagree	4(8.0)	6(13.6)	0(0.0)	4(5.3)	14(5.8)

Total : X=84.2, p<0.001

Table 10. Number and percentage of responses to the statement that the most patients know about their imminent death

					() = %
	Ca. patient N=51	Ca. patient's family member N=44	Elderly N=72	medical personnel N=75	Total N=242
Strongly agree	4(7.8)	4(9.1)	20(28.6)	18(24.0)	46(19.0)
Agree	22(43.1)	20(45.5)	13(18.6)	40(53.3)	95(39.3)
Uncertain	15(29.4)	15(34.1)	16(22.9)	17(22.0)	61(26.0)
Disagree	8(15.7)	5(11.4)	21(30.0)	0(0.0)	34(14.0)
Strongly disagree	2(3.9)	0(0.0)	0(0.0)	0(0.0)	2(0.8)

Total : X=54.50, p<0.001

6. 임종에 대한 지각 문제

임박한 죽음의 지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았다 (표 10). 응답자 242명중 141명(58.3%)가 스스로 지각할 수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의료인군이 77.3%로 타군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고 찰

임종 통고에 대해 노인군 및 환자가족군의 반대는 각각 40.2%, 40.9%로 나타났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임종 통고를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환자 가족의 반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사료된다.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중에 상황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결과가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¹⁸⁻²⁰⁾

임종환자를 회피하는 경향에서 의료인군이 환자군에 비해 반대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암 환자의 경우 의료진으로부터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일부 의료인들이 암 환자를 회피하는 경향(찬성 37.3%)을 스스로 시인함을 볼 수 있다.

의료인이 임종환자를 먼저 포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242명 중 찬성 100명(41.3%), 반대 69명(28.5%)인데 비해 의료인군은 찬성 36%, 반대 40%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료인들이 임종환자치료에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불치병 환자의 생명연장에 대한 태도에서는 노인군과 의료인군이 환자군과 보호자군보다 반대율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실제로 죽음에 직면한 환자와 그 가족들은 생명연장을 원하는데 비해, 임종을 관념적으로 생각해온 노인군과 의료인군에서는 기계적인 생명연장을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orey²¹⁾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젊은 사람일수록 죽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종환자를 위한 특수시설 및 교육문제에 대해 의료인군의 찬성이 가장 높고 환자군에서 가장 낮은데, 이는 임종환자들의 Hospice에 대한 인식부족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소외당하지 않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임종환자에 대한 가족의 태도에서는 가족군보다 환자 및 노인군에서 귀찮게 여긴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아, 환자 및 노인군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여지고, 보호자군에서 찬성률이 낮은 것은 한국의 전통적 효의 관념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임종에 대한 지각문제에 대해 의료인군이 스스로 지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타군보다 월등하게 높았는데, 이는 의료인들의 임종에 대한 인식이 관념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함을 반영하며 환자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의미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으며, 임종하는 환자에게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 임종환자 및 보호자, 노인들과 의료인들에 있어 임종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규명해 본 결과 임종 통보, 의료인의 태도, 불치병 환

자에 대한 생명연장에 대한 태도등에서 몇가지 유의한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Hospice 임상 적용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제시한 결과라고 본다.

본 연구 결과 나타난 바에 의하면 4군들간에 각 문항에 대한 반응들에서 이상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임종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능성으로서는

첫째, 임종 통보를 못하는 이유로서 환자 가족의 반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욕구와 무관하게 임종 통보를 보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불치병 환자의 기계적인 생명 연장에 대한 태도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이것을 원하는데 비해 의료인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으로서 치료 방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세째, 환자나 가족, 노인들이 Hospice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과 아울러 Hospice가 한국의 전통적인 효의 관념과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네째, 상당수 임종환자들의 경우 그들만의 특수 시설에 대해 다소 거부감을 보였다.

이에 대한 시책으로

첫째, 암환자와 가족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증진하여 적절한 시기에 환자위주의 임종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불치병에 대한 생명 연장 문제는 의사와 환자 및 환자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특히 의료인의 생명존중 태도가 우선적 입장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임종환자의 간병제도인 Hospice의 역할은 차후 계몽을 통하여 불효 개념과 무관함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네째, 한국적 현실에서 Hospice의 운영은 병원보다 가족중심 운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 약

1. 임종통고에 대한 반대는 노인군과 환자가족 군이 40.2%, 40.9%로 환자군과 의료인군의 23.5%, 13.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2. 임종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회피적 태도에서 의료인군의 44%가 반대하여 전체평균 28.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3. 불치병 환자의 생명 연장에 대한 태도에서는 환자군과 보호자군의 반대율이 33.3%, 22.5%로 노인군과 의료인군의 54.5%, 56.0%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1$).
4. 임종환자를 위한 특수시설 및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의료인군의 찬성율이 81.3%로 가장 높았고 환자군이 56.8%로 가장 낮았다.
5. 임종환자에 대한 가족의 회피적 태도에 대해서는 노인군의 찬성율이 81.3%로 가장 높았고 가족군이 34%로 가장 낮았다.
6. 임종에 대한 지각문제에 있어서는 의료인군의 찬성율이 77.3%로 전체평균 58.8%보다 높았다.

참 고 문 헌

1. 양구봉·김영현: 임종 통고 여부에 대한 의료진과 학생군의 태도. 신경정신의학, 24(4) : 553-567, 1985.
2. 조중근: 임종환자에 대한 태도 조사. 신경 정신의학, 27(2) : 295-311, 1986.
3. Freud, S. : The theme of the three caskets. Engl. St. ed., Seventh printing, Horgarth, London, 12 : 289-302, 1913.
4. Kubler-Ross, E. : On death and dying. Macmillan, New York, 1969.
5. Kubler-Ross, E. : Questions and Answers on Death and Dying. Macmillan, New York, 1974.

6. Oken, D. : What to tell cancer patients (A study of medical attitudes). JAMA, 175(13) : 1120-1129, 1961.
7. Noyes, R., and Travis T.A. : The care of terminally ill patients. Arch. Intern. Med., 132 : 607-612, 1973.
8. Aldrich, C.K. : The dying patient's grief. JAMA, 184(5) : 329-331, 1963.
9. Barton, D. : Teaching psychiatry in the context of dying and death. Am. J. Psychiatry, 130(11) : 1290-1291, 1973.
10. 유계주: 죽음의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임종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대한 간호학회지, 4(1) : 162 : 176, 1977.
11. 조길자: 간호학생과 비간호학생의 죽음의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33 : 619-631, 1977.
12. 한성숙: 중환자실 근무 간호원들의 정서갈등. 카톨릭 대학 의학부 논문집, 33 : 234-241, 1980.
13. 이희: 의대생 및 전공의가 보여준 임종환자에 대한 태도. 신경정신의학, 18(1) : 49-54, 1979.
14. 이시형: 임종과 자살의 정신의학적 가료. 대한의학협회지, 23(1) : 25-30, 1980.
15. 조두영: 말기 임종환자에의 병황 진실통고를 들려싼 시시비비(국내 의과대학 임상전임교수들의 경우). 신경정신의학, 20(1) : 1-16, 1981.
16. 박동건·조두영: 말기 임종의 병황 진실통고 여부를 들려싼 병원 환자측 태도조사. 신경정신의학, 20(3) : 339-348, 1981.
17. 정동철: 임종환자의 치료. 정신의학보, 2(12) : 2-7, 1979.
18. 한규희: 간호원 및 간호학과생의 임종환자에 대한 태도. 신경정신의학, 20(4) : 400-408, 1981.
19. 양규봉·김영현: 임종통고 여부에 대한 의

- 료진과 학생군의 태도. 신경정신의학, 24 (4) : 553-567, 1985.
20. Rennick, D. : What should physician tell cancer patients ? . New Medical Material, 2 : 51-53, 1960.
21. Corey, L.C. : An analogue of resistance to death awareness. J. Gerontol., 16 : 59-60, 1961.

-Abstract-

A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dying and hospice

**Young Uck Kim, Jung Hoon Lee, Jong Bum Lee
Byung Tak Park, Sung Duk Cheung**

*Department of psychiatry
Yeungnam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Korea*

Myung Se Kim

*Department of therapeutic radiology
Yeungnam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Korea*

Hoo Ja Kim

*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Junior college
Taegu, Korea*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attitudes toward dying and hospice. 4 subjects groups are Ca. patient, Ca. patient's family, elderly, medical personnel.

A 40 questionare was filled out by each participant. For this study chi-square and T-test was done.

The result were as follows :

1. Telling the truth

61.2% of all subject groups agreed upon telling the impending death.

About 40% of elderly group and cancer patient group were disagreed which is the highest percentage in all groups.

Particularly medical personnel group were remarkably high in telling the truth.

2. Attitudes of medical personnels

43.3% of all groups agreed upon medical personnels prefer to avoid dying patient.

In medical personnel group. 44% of respondents disagreed comparably higher than other group, But 37.3% of medical personnel agreed. It showed that medical personnels admitted their negative feelings toward dying patient in considerable degree.

3. Attitudes toward mechanical assistance for life-expanding or hopeless patient.

44.8% of all groups disagreed upon mechanical assistance for hopeless case. Elderly (54.9%) and

medical personnels (50%) disagreed, which is higher than cancer patient (33.3%) and (22.8%) of cancer patient's family.

4. Special facility and educational preperation for dying patient.

67.4% of all groups agreed upon the needs of special facility for dying, 81.3% of medical personnels agreed which is highest percentage in all group.

5. Attitudes of family members of dying patient.

82.3% of all groups agreed upon the family members feel annoyed at dying patient. 34% of cancer patient's family member and 48% of cancer patients group agreed, but elderly group showed highest percentage(84%).

6. Perception of dying patient about imminent death.

58.3% of all group thought dying patients are aware of their impanding death even though they had not been told.

77.3% of medical personnel agreed which is highest percentage in all group.

Key Wards : Attitudes on dying, Hospice.